

## 한지와 먹으로 표현한 독창성...권영우 개인전

2015/11/01 김정선 기자

서울 종로 삼청로에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단색화 작가 권영우(1926~2013)의 개인전이 12월6일까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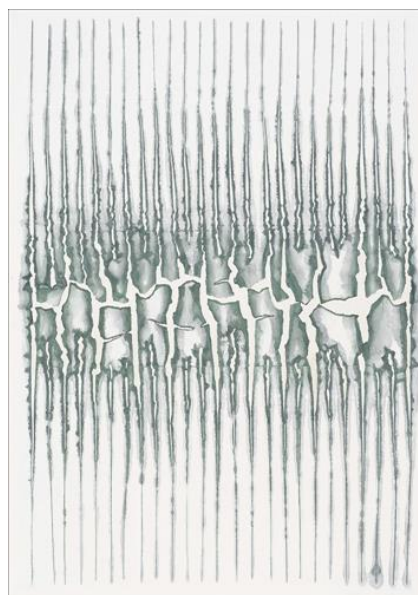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선 전통 매체인 한지를 통해 작가가 1980년대 실험한 채색 작업을 포함해 총 30여 점이 선보인다.

국제갤러리는 "권영우는 한국화의 핵심요소인 먹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전통회화의 추상적 표현 가능성을 탐구해왔다"며 "그리는 행위를 배제하는 대신 종이를 자르고 찢고 뚫고 붙이는 독자적 작업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은 먹이 흘러내리고 짙히고, 종이의 표면에 스며드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다뤘다고 갤러리는 부연했다.

한국 현대 회화를 개척한 세대에 속하는 권영우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1965년 제8회 도쿄비엔날레, 1973년 제12회 상파울루 비엔날레를 거쳐 1975년에는 일본 도쿄화랑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의 흰색'전에 참여했다.

1970년대 후반 프랑스로 이주해 작품활동에 전념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1998), 은관문화훈장(2001) 등을 받았다.



무제, 1985 한지에 과슈, 먹 165 x 116 cm ©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